

2024 새해 이렇게

정인화 광양시장

이차전지·소부장 클러스터 조성 신산업 메카 발돋움



소상공인 지원해 민생경제 활력 회복...광양산단 근로자 환경 개선 권역별 관광 기반시설 조성...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 촘촘한 복지

"2024년 새해 시정 운영의 초점을 시민의 안녕과 행복에 맞추고 최고 안전한 도시, 최고 행복한 도시, 모든 사람이 들어와 살고 싶은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온 힘을 쏟겠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시정 운영 핵심어로 '신심직행' (信心直行)을 꼽았다. 옳다고 믿는 바를 곧바로 실행에 옮긴다는 뜻이다.

정 시장은 올해 민생경제 활력과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활성화, 탄소중립 선도, 안전한 미래 도시 등에 행정력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민생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을 위해 제감할 수 있는 촘촘한 '핀셋 지원'을 실시하고 사업을 중단해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등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준비했다.

광양읍출산단, 세풍산단, 동호안 부지에 이차전지와 수소산업의 앵커(선도)기업과 소부장 기업의 산업 집적단지를 조성해 신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광양의 새로운 미래 신성장 산업이 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건립은 차질없이 추진한다.

지식산업센터 개소로 소재부품 창업과 기술혁신의 인큐베이팅,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는 등 전략산업 집적화도 꾀한다.

지난해 8월 공모에 선정된 광양국가산단의 노후기반시설 정비와 근로자 근무환경개선 사업도 올해 본격화한다.

광양시는 특색 있는 관광문화체육 기반시설을 조성하며 남해안의 중심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권역별로 특색 있는 관광지를 조성해 섬과 여유가 있는 새로운 시대의 여행을 주도할 계획이다.

광양읍권은 백운산을 중심으로 생태 체험 관광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토종 야생화 단지를 조성해 생태 관광 학습장으로 활용한다.

광양읍 합강지역의 습지를 생물서식처로 복원하고 자연경관을 보유한 백운재 주변에 들레길 조성, 팻터조트 투자 실현으로 힐링 체류형 관광지화한다.

중마동 권역은 원도심과 신도심의 중심축인 구봉산을 중심으로 대규모 종합 관광단지로 조성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여기에는 봉화산과 구봉산을 잇는 세계 최장 출렁다리 설치, 구봉산 일원에 소재과학관, 상상 놀이터 등 가족형 어린이테마파크, 케이볼카, 알파인 슬라이드, 체험형 조형물 민자 유치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구상 단계에 있다.

망덕포구와 배알도 중심의 섬진강권은 신개념 숙박시설인 워케이션, 운동주 정병욱 문학관, 운동주의 별빛아일랜드, 별빛 캠핑장, 짚라인 등을 조성해 관광거점으로 활용한다.

문화예술 관련해서도 콘텐트 확산의 구심점 역할

할을 할 문화예술재단 설립과 광양문화원, 문화예술회관 신축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해 높아진 시민 문화 수요에 발맞춘다.

광양읍 공설운동장을 중심으로 기존 체육시설의 부족한 부분은 보강하고 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스포츠 타운 조성도 계획했다.

정 시장은 "누구나 원하는 복지를 지방소멸의 위협에 대처하는 가장 기본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 기간과 금액 확대, 양육지원금 신설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 승인을 끌어낼 계획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을 도내 최고 수준 건립하고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을 추가 운영해 빈틈없는 응급의료 체계를 가동한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소통과 참여 활성화로 시민 중심 시정을 확대하겠다"며 "시민 누구나 의견을 제안하는 '광양공동체',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 소통의 날',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 등을 정례화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고흥군, 1명만 전입해도 지원금·세제 혜택

올해부터 1인당 10만원...자동차세 등 지방세 별도 지원

고흥군이 올해부터 전입세대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한다.

고흥군은 전입세대 지원대상을 애초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 전입 세대로 넓힌다.

지원금액 또한 전입 가구당 20만원에서 전입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1인당 10만원씩 지원한다.

고흥군은 인구정책 부서를 인구정책과에서 인구정책실로 격상하며 지방 소멸 위기 대응책을 강화한다.

최근 도시권 은퇴자 등 1인 세대 전입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이번 확대 시책을 마련했다.

고흥군은 지난해 고흥군의회와 협의를 거쳐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지원 대상은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올해 1월1일 이후 고흥군으로 전입해 6개월 이상이 경과 된 1인 이상 세대이다.

지원 금액은 전입 세대원의 상한 제한 없이 1인

당 10만원씩이다.

자동차세(가구당 최대 10만원 1회)와 개인분주면세(3년간) 등 지방세 또한 별도로 지원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올해 우리군 미래전략 3대 산업인 우주발사체, 드론·도심항공(UAM), 스마트팜과 함께 인구 중대를 군정 주요 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찾아가는 귀향귀촌 설명회", "고흥에(愛) 주소찾기 운동" 등 전입 인구 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보성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말까지



보성군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당초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였다. 대상은 지역 내 주소와 두고 있거나 경작지를 등록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농기계임대사업소(사진)에 보유 중인 67종 546대의 모든

임대 농기계를 절반 값에 이용할 수 있다.

보성군은 지난해 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6429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했으며, 이를 통해 1억1900만원의 농가 경영비 절감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김치·차 나눔...사랑이 꽃피는 '녹동새마을금고'

봉사활동으로 지역민과 상생

녹동 새마을금고와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금고로 거들거기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녹동 새마을금고 MG 여성 성김 봉사단은 최근 청소년 범죄예방에서 주축하는 사랑에 김치나눔 행사에 참여해 봉사 단체에 대한 무료 차 봉사와 김치 담그기 봉사활동을 통해 저소득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김치 15박스를 전달했다. 또 녹동 전통시장 한마음 축제 때에는 지역민과 관광객을 위한 무료 차 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가정(녹동 2구)을 방문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녹동 새마을금고는 MG 여성 성김 봉사단을 통한 금고 홍보와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민들과 함께 상생을 위한 나눔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있다.

이광우 녹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지역민과 함께 지역을 선도하는 금융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하고 가족 같은 금융 동반자로서 역할을 해 가겠다"고 말했다.



녹동 새마을금고는 매년 녹동 전통시장 한마음 축제 때 지역민과 관광객을 위한 무료 차 나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녹동 새마을금고는 총자산이 1065억원이며, 3800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순천시, 홍콩서 'K-디즈니' 벤치마킹

싱가포르 등 순차 방문...정원·문화에 디지털 접목 방안 모색

순천시는 8일까지 1박 3일 일정으로 홍콩·싱가포르를 찾아 'K-디즈니 순천'을 실현할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국외 연수단은 첫날 홍콩 란타우 산을 기반으로 조성된 디즈니랜드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정원과 문화를 접목할 방안을 찾았다. 홍콩 디즈니랜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점이 특징으로, 연간 600만 명 이상 관광객을 기록하고 있다.

이어 7일에는 싱가포르를 찾아 순천 정원에 디지털 요소를 접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는 도시 속에 녹아있는 애니메이션 요소를 발굴했다. 가든스 바이 더 베이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정원을 통해 국가정원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방안을 찾았다.

순천시는 K-디즈니 완성을 위해 이번 국외 연수 결과 등을 반영한 '2024 주요업무 실행계획 보고회'를 오는 15, 16일 이틀간 개최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생태와 정원이라는 순천의 우수한 아날로그적 요소에 인공지능(AI)과 문화, 디지털을 입힐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번 연수의 목적"이라며 "순천의 우수한 아날로그적 요소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가는 한편, AI와 같은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3대가 함께 즐기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 어촌에 하반기 필리핀 계절근로자 100여명 유치

우바이시와 업무 협약

여수시가 필리핀 우바이시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업무협약을 맺으며 어촌 인력난 해소에 나섰다.

여수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정기명 여수시장과 콘스탄티노 레예스 필리핀 우바이시 시장, 막시모 보일즈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11월 우바이시에 계절 근로자 도입 의향서를 보냈다.

협약에 따라 우바이시 계절 근로자가 오는 10월 입국할 예정이다.

여수시가 지역 어가를 대상으로 외국인 인력 수요조사를 한 결과 175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수시는 올해 하반기 신청을 받아 속도 제공 등 기준을 충족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100~200명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운데)와 콘스탄티노 레예스 필리핀 우바이시 시장 등이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외국인 인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바이시는 근로자들의 무단이탈 방지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여수시는 우바이시 계절 근로자가 여수의 어업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협약을 기점으로 여수시와 우바이시 두 기관이 어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협력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곡성 저소득층 초등생에 치과 진료비

1인 6년간 30만원... 지난해 8개 초교 481명 혜택

곡성군이 저소득층 초등생을 대상으로 치과 진료비 본인 부담금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곡성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치과의사가 초등생의 주치의를 맡아 모든 학년에 구강 검진, 예방 진료, 치료·관리 등을 제공한다.

학생의 구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맞춤형 진료 계획을 세우고, 올바른 구강 관리 교육도 한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 8개 초등학교 모든 학년 835명 중 58%인 481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는 전국 시범사업 지역 평균 참여율(26.1%)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지원 범위는 예방 진료부터 충치 치료에 이르기까지 폭넓다.

곡성군은 저소득층 초등생의 치료를 위한 본인 부담금을 연간 최대 5만원 지원한다. 올해 1학년 생이라면 초등학교 졸업까지 6년간 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 대상은 곡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이다. 신청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곡성군과 협약을 맺은 치과의료기관 8 곳에서 할 수 있다.

조민형 곡성보건지료원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의 구강 건강 수준 향상과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 건강 불평등을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